

## Awana 칼럼

### 미국의 입국 심사대 앞에서



한국어와나 대표  
이종국 목사

얼마 전 나는 시카고와 시애틀을 방문하려는 목적으로 미국 여행길에 올랐다. 동경을 거쳐 시카고로 가는 인천발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한 두 번 하는 여행도 아닌데 미국 여행은 좀 멀다는 생각이 든다.

오랜 비행 끝에 시카고 공항에 도착했다. 입국심사를 하는 곳에 도착했을 때 예상보다 긴 줄에 깜짝 놀랐다. 그러나 입국심사 창구에 불이 다 켜져 있는 것을 보고 너무 걱정하지 않았다.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은 예감이 들어서였다.

그러나 나의 예감은 어긋나고 말았다. 생각했던 것보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다. 입국심사 창구를 자세히 보니 심사대 절반은 심사직원이 앉아 있지 않았다. 비행기는 속속 도착하고 사람들은 계속 줄을 서는데 입국 심사 창구는 더 열리지 않았다.

주변에서 초초한 듯 시계를 들여다보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발견했다. 그들은 이곳이 마지막 도착지가 아닌 듯 했다. 입국 심사를 마치고 비행기를 갈아타야 하는데 도무지 줄어들지 않는 긴 행렬이 그들의 마음을 까맣게 태우고 창백한 얼굴을 만들었다.

한 중국인 아주머니와 한국인 아가씨도 발을 동동 굴고 있을 뿐이었다. 용기를 낸 두 사람은 그곳을 안내하는 직원에게 찾아가 사정을 말했다. 먼저 입국심사를 받도록 도와달라고 했다. 그러나 그곳 직원은 무표정한 얼굴로 사람들의 긴박한 사정은 아랑곳없이 줄을 서라는 말만 했다.

어두운 표정으로 돌아온 그들의 얼굴을 보며 오히려 내 마음이 조금해지는 것 같았다. 얼마나 오래 걸렸을까? 드디어 내 차례가 되었다. 유쾌하지 않은 인터뷰를 끝내고 가방을 찾으러 수화물 찾는 곳으로 가 보았다. 그런데 분명 8번 코너가 내가 타고 온 비행기의 수화물 코너인데 그곳에는 벌써 다른 비행기편 안내가 붙어 있었다. 이미 나의 가방은 입국심사를 마치지 못한 다른 사람들의 가방과 함께 한쪽 구석에 옮겨져 있었다.

가방을 찾아 나오며 몇 가지 생각이 지나간다. 나는 천국의 시간표를 잘 지키고 있는지, 혹 개인적인 사정과 외부의 방해로 나의 천국행은 방해받고 있지는 않은지, 아직 마지막 도착지에 가지 못하고 연결 편에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나는 다른 사람들의 긴박한 필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지? 그들의 필요에 진심한 마음으로 구원의 긴박성에 적극적으로 응답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된다.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 까다로운 입국 심사를 하지 않는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영원한 시민권 도장을 받는다. 이것이 진리이다. 어와나는 다음 세대를 천국의 삶으로 인도하며, 하나님 말씀의 진리로써 그들을 도전하고 훈련하는 곳이다. 금생과 내생의 유익을 위한 어와나 사역에 당신의 귀한 동역을 요청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요한복음 3:16).



## ***At the Immigration Checkpoint***

This month I went on a trip to Chicago and Seattle for meeting Awana people. For this trip to Chicago, I left from Incheon and stopped over at Tokyo airport. Every time I travel, I feel it is too long distance for me to fly.

After long hours of flight, my plane landed safely at O'Hare international airport in Chicago. When I came to the immigration checkpoint, I found that there were so many passengers standing in the line. But I didn't worry because all immigration booth sign said all "open". I thought it would not take long.

Unfortunately the situation has failed to meet my expectation. I had to wait very very long time. It was because there was only half of immigration booths filled with officers. The more flights were landed, the more passengers kept joining our group. But there were no more officers.

The group of passengers was visibly shaken by the situation. Some of them anxiously waited for their turn and kept checking the time. It seemed Chicago was not their final destination. In order to take a connecting flight, they already spent too much time just waiting for their turn. It was no doubt that this situation made them nervous and their faces looked pale.

One Chinese old lady and a Korean young lady were two of them. They reached an American immigration officer and asked for help. They said they had no time left. But the officer kept a straight face. They received these words, "Go back to your line."

As time went on we all grew more and more impatient. How much more time I spent? Finally it was my turn. I finished my interview and ran to the baggage claim area. I was clearly informed that my baggage claim was on number 8. But I couldn't find my bag there. My bag was already moved to the corner stacked with other passengers' bags.

I quickly left the airport thinking that I shouldn't be the same in front of heaven's gate. Seriously I asked to myself with these questions. Is your time schedule alright? Where are you now? Is there anything hinder you from going to your final destination? Are you sensitive to other people's needs? Are you having urgency to meet their spiritual need?

The Kingdom of God needs no immigration office through the blood of Jesus Christ. All who has accepted Jesus Christ as their personal Savior receive their Heaven's citizenship. There is no exception. This is the truth. Awana is the ministry to lead our children and youth to heaven and teach and train them with the Truth, the Word which is good for the present life and the life to come. Where are you now? With all my heart, I invite you to join our ministry.

Billy Lee  
National Director  
Awana Korea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e and only Son,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shall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John 3:16)*

